

공공조달이 재생에너지 전환 이끈다... 조달청-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 체결

- K-RE100 참여기업에 나라장터 쇼핑몰 마크 표출로 기업 홍보 지원
-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우수 기업 대상 '최소녹색기준' 면제 추진

조달청(청장 백승보), 한국에너지공단(이사장 최재관)은 7월 28일(화) 오전 11시,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'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(MOU)'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연간 238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이 가진 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을 촉진하고,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경우,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.

조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△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, 내달(8월)부터 작년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△나라장터 쇼핑몰 화면에 K-RE100* 마크를 표출하여 수요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제품을 쉽게 식별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,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우수하게 증가한 기업에게 조달시장 진입 요건인 △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**한다. 또한, 향후에도 두 기관은 △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.

* (한국형 RE100) 국내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'21년부터 '글로벌 RE100' 기준에 부합하는 4개 이행수단에 기반한 K-RE100 제도 마련

** 에너지소비효율등급, 유해물질 배출량 등 최소한의 환경요소를 만족한 제품만 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

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"공공조달의 녹색 전환은 시대적 과제"라며, "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하여, 향후 조달 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"공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사용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, K-RE100 제도가 공공 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"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한도 (042-724-7305)
		담당자	사무관 남궁영선 (042-724-7683)
	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	책임자	팀 장 박정필 (052-920-0710)
		담당자	과 장 이민섭 (052-920-0711)